시편 **63:1~8,** 묵상 가이드

63: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친밀함의 정의는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눌 때 생기는 따뜻함, 친근함, 정서적 유대감"이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가장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나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친밀감 때문에 그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시편기자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63:1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 그분을 위한 것이었다. 그분이 공급해주심을 위한 것이 아닌 그분의 인격을 위한 것이었다.

메시지성경은 이 구절을 "나는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님과 시간을 갖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하고(추구하고) 있는가? 그의 인격? 공급하심? 다른 것?

63:1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을 갈망했다. 그는 간절했다. 우리가 정말 갈증날 때, 우리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것을 거의 집중할 수 없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영적으로 갈증을 느낄때, 나는 어떻게 그 갈증을 채우는가?

63: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문자 그대로 광야에 있었다. 그는 주의 집에 거했던 날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능력과 영광으로 여호와를 묵도한다. 이 묵상의 순간,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기억한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했던 영적 광야에서 언제 당신을 발견했는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CCCI 2014: Ver. 1.0

63:3-4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그분의 힘과 영광만을 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된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이다. 이것이야 말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요일4:10).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기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광야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랑에 압도 되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어려움만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내 주변의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63: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할때 우리의 다른 욕망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희미해진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그의 영혼이 전혀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바쁜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세요. 당신의 지난 **24**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나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위해 공급해주셨나요**?**

63:7-8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리이다**."**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헌신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았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살아가게 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내영혼은 무엇을 붙잡고(집착하고) 있는가**?** 누구의 힘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당신의 삶과 리더십을 위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